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9월 26일(금)  
---(음력 8월 5일)---  
Пятница  
26 сентября 2025 г.  
№ 38 (1215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27일은 러시아에서 교원의 날을 기념한다.

노 이리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유치원 '자가드카(수수께끼)'에서 교원으로 일한 지 6년이 넘었다. 사할린 사범전문학교와 사할린국립대 초등학교 교육 학과를 졸업한 그녀의 경력은 15년이다. 홈스크 지역 프라우다 마을 중학교에서 일한 후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해 체호브책 '사할린 섬' 사할린 문학미술박물관에서 근무했다.

2013년에 이리나는 '자가드카'유치원에 입사했고, 여러 번 시 단계 '올해의 교사'경연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2023년에는 '2023 교육자'경연대회의 '창의적 탐구와 및 독창적 해결안'부문에서 수상했다. 주 경연대회에서는 수상자로도 선정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중심으로 사할린주 개발, 국제 극동 에너지포럼에서 논의

9월 25일(목)-26일(금) '푸쉬 스틱' 무인기 공항 구역의 '사할린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국제 극동 에너지 포럼에서 사할린주의 석유 및 가스 기획 지원을 위한 기술적, 사회적, 인적 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 전략을 논의한다. 이 행사는 제10차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조성되며, 개최는 로스콩그레스 재단이 한다.

포럼의 일환으로 원자재수출과 심층가공 사이에 균형 전략을 비롯해 국가적 지원 및 다극화 세계와 제재의 조건에서 수출 흐름의 방향전환 문제를 논의한다.

발레리 리마레코 주지사는 "사할린주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 중심의 핵심지 중 한 곳으로서 세계적으로 난해한 상황과 제

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의 사업은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탄화수소 생산과 액화천연가스 생산의 목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극동 에너지포럼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 에너지의 전초기지로서 사할린주의 지위를 강화시켜 줄 구체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의 행사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 일환의 행사로 지정되어 사업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기업, 학계의 대표들이 전략적인 중요한 대화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되는 행사는 <극동의 에너지:자원, 기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체회의

이다. 회의에서는 '문명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역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중심지로서 사할린주 개발', '다극화된 세계의 경제성장 중심지들의 변동을 고려한 수출 흐름의 방향전환'이 논제이다.

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8개의 주제별 교육일정 및 회의가 계획된 가운데 항구의 현대화를 포함해 탄화수소(석유 및 가스) 매장지 개발기획을 위한 제반 시설 구축과 물류 및 복합운송 허브 구축, 해상운항의 안전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 재생에너지 도입, 전력화, 에너지시스템의 디지털화,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력산업의 안정적 발

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우호국가들의 협력자들과 국제적 협력, 투자유치 전망, 인적자원개발, 전력단지의 디지털 전환, 교육클러스터 조성,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기술, 지능형 관리시스템 개발(석유 및 가스기업 디지털 관리 시스템)과 수입대체 방안 및 석유.가스산업에서 사이버안전에 따른 정책 등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정부기관, 기업, 학계 단체의 대표들과 과학계 전문가, 산업계 수석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포럼의 일환으로 청년 과학적 실습 콘퍼런스가 조성되고, 사할린 석유.가스산업단지 행사장에서는 '사할린 터빈서비스'회사의 가스터빈 및 그 부품수리와 특수 난방장비 생산에 따른 공장 개장식이 열린다.

## 단신

### 세계 청년축제의 외국인 참가자, 사할린 방문

사할린주가 제 1차 세계 청년축제의 대표단을 맞이했다. 사할린주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 차원의 집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표단은 영국을 비롯해 브라질, 케냐, 중화인민공화국, 불가리아, 체코, 방글라데시, 세네갈, 에티오피아, 그리스에서 온 21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사할린에 도착했다. 일주일간 이들은 사할린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대규모 산업 기업들과 사할린의 유명한 관광 명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사할린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 협력 전망의 맥락에서 사할린주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대표단을 위해 대학 시설 방문과 함께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소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탐방과 주요 기업들 방문 및 대규모 문화행사가 조성된다.

###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오스트로와' 개최

9월 28일(일)부터 10월 5일(일)까지 사할린에서 제11회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오스트로와(섬들)'가 열린다. 이번 포럼에 자원봉사자, 전문가, 지역 정부 대표들을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서 14세부터 35세까지의 학생 및 청년 전문가가 620여 명이 참가한다.

포럼의 주요 목적은 재능 있는 청년들의 지도력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극동 지역에서의 경력을 구축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번에 참가자들을 위해 관광, 석유·가스, 건설, 의료, 항공, 에너지, 수소기술, 무인기 생산, 과학, 스포츠, 예술 등 분야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 사할린 국립대에 11개의 새로운 과학-연구소 설립

사할린 국립대학에 11개의 새로운 과학 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해 경험 많은 연구자들의 지도 아래 대학생들이 산업 협력자들의 과제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기획은 발레리 리마레코 주지사가 참석한 학술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사할린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수소 생산 시스템을 위한 개발 장비와 수송에 있어서 수소기술 및 석유가스산업의 공정 모델링, 다상유동 전류의 실험적 모델링, 전기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설립된다. 이 연구소 설립은 '선진 공학학교' 연방 기획으로 가능해졌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추가로 6개의 연구소를 설립해 가두리양식, 분자생명공학, 해양계측기연구, 해양전자시스템, 현대 아시아연구, 교육학에서의 디지털기술에 따른 연구를 하게 된다. '2030 우선순위' 국가프로그램의 지원으로 2026년에 과학·교육 공간이 건설되는데 현재는 사할린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협력업체들의 지원으로 10개의 연구소가 운영된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막내 아들 덕분에 천직을 찾은 김 이리나 원장, 20년을 교육에 바치며

9월 27일은 러시아에서 교원의 날을 기념한다. 학령 전 기관의 체계가 잘 갖춰진 러시아에서는 유치원을 못 다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첫 번째 공동체인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치원 목록을 살펴보니 한인 동포인 유치원 원장을 발견했다. '야고드카(열매)' 제47번 유치원의 김 이리나 배체슬라보브나 원장(1973년생)이다.

그의 교육 분야 활동은 정말 우연하게 시작되었다. 판매원 일을 좋아하고 상업을 전공한 그녀는 이 분야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 전인 2005년, 2003년생 막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갔을 때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교원으로 딱 한 달만 일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교육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전문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점을 높이 산 원장의 판단이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가장 어린 2세 유아를 돌보는 그룹(야슬리)에서 일해보고 싶었죠."라고 이리나 원장은 당시를 회상한다. "제가 아이들에게 힘과 시간, 지식을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과를 보고 싶었죠." 이렇게 유치원에 남게 된 그녀는

동시에 사할린국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다. 유치원 일에 폭 빠진 이리나 원장은 일 때문에 러시아인 남편과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 "남편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일을 통해 이루는 것들과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며 '네가 옳았어, 이걸 100% 너의 일이야'라고 말해줬어요." 현재 남편은 다른 유치원에서 목수로 일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교사로서 최선을 다한 그녀는 빠르게 성장해 상급 교원, 부원장을 거쳐 2016년에는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교육당국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은 셈이다. 현재 원장으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들의 안전, 건강, 교육을 지키는 것이며, 시교육당국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야고드카' 유치원 원장으로 임명됐지만, 당시 유치원은 공사 중이었다. "10월이었는데, 공사가 지연이었어요. 진흙과 흙먼지가 가득했고, 예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죠. 자재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라고 이리나 원장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한다. 다행히 남편과 전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도움과 이리나 원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차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



했고, 2017년 마침내 '야고드카'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었다.

현재 '야고드카' 유치원에는 25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약 60명의 직원 중 38명이 교육자이다. 이곳에 발을 들인 직원들은 거의 떠나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친절한 분위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리나 원장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필요하면 작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며, 성장을 위한 환경을 고민한다. 이런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 흥미로워

요. 그런 과정 끝에 얻는 성과를 볼 때마다 큰 뿌듯함을 느껴요."라고 그녀는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늘 직원들에게 "우리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리나 원장의 공식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실제로는 아침 6시, 늦어도 7시에는 출근한다. 그리고 오후 4시를 훌쩍 넘겨서야 퇴근한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오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9시가 되면 직원들과 차를 마시며 간단한 회의를 가지고 당일 할 일을 논의하지요."라고 원장은 설명한다. 그의 책상은 철저하게 체계화되어 있다. 아주 긴급한 업무, 처리해야 할 업무 순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바쁜 일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도 유치원이 참여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나 공공 사업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그래서 휴일에도 그는 각종 행사장을 찾는다. 유치원생들이 참여하는 아이스하키 대회, 공연, 교육 프로그램부터 교사 대상 행사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하루에 두 행사를 소화하기도 한다.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는 아이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유

치원은 전국 대회에서 2위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원장실 벽에는 수많은 표창장과 감사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다. 학부모 일동이 쓴 감사장이었다. "원장님의 지도 아래 일하는 교사, 부모, 조리사 누구나 아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선물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기쁘게 유치원에 오고,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노력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리나 원장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누군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는 너무 감정적이고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료들은 저를 '정상이 아니'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누구도 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다. 남편의 변함 없는 지지, 동료들의 신뢰와 협력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 그녀의 사람됨을 증명해준다.

그녀의 삶은 일에 대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어떻게 아이들, 학부모, 동료라는 공동체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다.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을 주는 순간은 여전히 아이들과의 소중한 만남이다. "아이들이 유치원 행사에서 어떤 '선물'이나 '마법'을 발견했을 때 반짝이는 눈빛과 '와!'라는 탄성을 들을 때면, 모든 고생이 사라져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일하는 거죠."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 미술박물관, 기위 만트카와의 탄생 95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9월 18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고 기위 만트카와 화가 탄생 95주년 기념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전시회에서 박물관 소장품 중 기위 만트카와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가운데 개막식에 화가의 친척들과 많은 그의 애호가들이 참석했다.

기위 만트카와 화가는 소련과 러시아의 화가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미술협회의 회원이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훈화가이고, '사할린의 조지아인, 조지아적 사할린 사람'이라 불리는 사할린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북부 땅과 그 주민들을 향한 진솔한 사랑의 역사이며, 작품 속에는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정서가 녹아있다. 1956년 사할린으로 이주한 기위 만트카와는 40년 넘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살면서 창작에 몰두하여 당대에 자기만의 독특한 연대기를 만들어갔다. 그의 일련의 스케치 작품들로 '과거와 현재의 사할린'은 시대의 모습만 아니라 화가의 자기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강렬한 선과 리듬감 있는 형태, 사할린 생활의 생동감 넘치는 숨결은 선명하고도 때론 회색빛 음영을 통해 표현되면서 그가 포착한 사할린의 정취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

작가의 창작력은 1970년대에 더욱 절정에 이르렀고,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자신의 작업방식의 한계를 넘어 초상화, 풍경화, 풍속화를 그렸다. 그의 화법은 굵아치는 굴곡의 붓놀림과 생생하고도 풍부한 색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때로 선명한 선은 판화를 연상시켰다. 사할린의 풍경은 작가의 창작세계와 마음 속에 언제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2025년 12월 까지 계속된다.

**Выставку к 95-летию Гиви Манткавы открыли в Сахалинск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9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художника Гиви Манткавы.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мастера из собрания музея. На открытие приш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художника, а такж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оклонники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Гиви Манткава — не только совет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художник, член Ассоциации изящных искусств ЮНЕСКО и заслуженный художник РСФСР, но и знаковая фигура для Сахалина, человек, которого называют «сахалинским грузином и грузинским сахалинцем».

Его творчество — это искренняя история любви к северной земле и ее жителям, органично вписавшаяся в культурный код региона. Переехав на остров в 1956 году, художник более сорока лет жил и твори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в своеобразным летописцем своей эпохи.

Его серия графических работ «Сахалин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отражает не только образы, но и самоощущение времени. Строгие линии, пластика форм и живой пульс островной жизни переданы через яркие, а порой и сдержанно-серые оттенки, точно улавливающие настроение острова.

Наибольший расцвет творчества художника пришелся на 1970-е годы, когда он создавал портреты, пейзажи и жанровые сцены, не ограничивая себя рамками, но всегда сохраняя узнаваемый стиль. Его технику легко определить по волнообразным рельефам мазков и сочным, насыщенным цветам, а четкость линий иногда напоминает линогравюру. Сахалинские пейзажи всегда занимали особое место в творчестве художника.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до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 사할린주 수색대 경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팀 우승

9월 2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바르스'팀이 사할린주 수색대 집회와 '수색·발굴·발표' 애국 부문 연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집회가 7일간 진행된 가운데 네벨스크팀, 흄스크팀, 돌린스크팀, 포로나이스크팀, 오킨키 마을 팀, 브즈모리에 마을 팀, 지방의 여러 지역의 팀들이 참가했다고 '러시아 수색활동 - 사할린'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집회 프로그램은 '단체의 명함', '독특한 전람회'에 따른 경연과 '세대의 생생한 기억'을 주제로 한 기획 발표

가 포함되었고, '무기, 군복, 대조국전쟁시대의 다양한 훈장들' 종합 수업을 이수하고, 포베다 역사기념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극동의 승부. 전쟁에서 평화로' 전시회 방문으로 이뤄졌다.

각 팀들은 군사수색소에서 자신들의 신체적으로 숙련된 실력과 수색 퀴즈대회에서 지식을 한껏 발휘하고, 특히 훈련 실습에 중점을 둔 가운데 아나와 지역에서 참가자들은 수색장비를 장착하고 작업을 하여 학교 박물관 소장품으로 추가될 물품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추모행사로 참가자들은 '올호와트카' 추념단지에서 공군 참전용사들과 장병들의 무덤에 헌화했다.

경연 결과 '바르스'팀이 우승해 첼랴빈스크주에서 열리는 '수색 준비' 지역 간 경연에 사할린주를 대표하여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 Команд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бедила на областном слете поисковых отрядов

21 сентября, команда "Барс"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слета поисковых отрядов и объединени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оиски. находки. Открыт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течение семи дней и собрало команды из Невельска,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Поронайска, села Огоньки, села Взморье и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региона,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 Сахалин".

Программа слета включала конкурсы "Визитка команды", "Уникальный экспонат" и защиту проекта на тему "Живая память поколений".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е занятие "Оружие и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времен ВОВ" и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к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инал. От войны к миру" в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Команд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физические навыки на военно-поисковой тропе, а знания — в поисковой викторин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практике.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участники работали с поиск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нашли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пополняют коллекции школьных музеев.

(8면에 계속)

#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 김치축제 개최에 300여 명 참가

지난 9월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최로 사할린 김치축제가 개최됐다.

축제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기 그룹의 활기찬 북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김치축제는 1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야외 행사로는 이번이 5회째라고 밝혔다.

이날 드미트리 하이브리예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부시장과 블라디미르 노소브 러시아 외무부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가 축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또한 국장현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 소장 내외,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사할린국립대학교 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제 규모는 매우 컸다. 참가자만 300여 명에 달했으며, 배추 1,200kg과 고춧가루 30kg, 마늘 45kg 등이 준비되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참가자들은 진행자인 한정자와 립 다니일의 설명에 따라 주최 측이 미리 준비한 양념과 절인 배추,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각자가 만든 김치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김치를 담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참가자들 모두가 만족을 표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대구의밤 20주년·사할린의밤 10주년 대구청년회, 고맙습니다!



## 소중한 추억

20년 전에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본사, 주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사할린한인 사회계에 큰 관심을 갖고 현지 실태를 열심히 파악하시던 하 회장님의 모습이 오늘날도 생생합니다.

매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공원에서 사할린한인회 (당시 회장 박해동),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당시 회장 박정자)가 개최하던 광복 기념행사에 하태균 대구시 청년팀이 반드시 참석하시고, 일제 식민지 시절 멀고 먼 동토로 강제 연행을 당한 노인들, 그분들의 후손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에게 광복절 축사를 전하시며, 무대에서 "절 받으세요!" 하면서 정중히 절을 하면 관객들의 박수갈채와 환성이 크게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감추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광복절 기념행사에 이어서 저녁에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주최로 의미있는 <대구의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할린 한인사회계와 맺은 인연을 20년 동안 유지해오시고 또 새로운 20년을 예정하시는 하태균회장님이 존경스럽고, '사할린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10회 <사할린의밤> 개막식

지난 18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주최로 제10회 <사할린의밤>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행사에 주호영 국회의장, 이인선 국회의원,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을 비롯해 29개 지역에 사시는 사할린동포 한인회 회장들과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2단지 한인회 (회장 박정자)의 회원 20 명이 함께 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은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미결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풀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대구의밤> 20주년과 <사할린의밤> 10주년 행사는 대구청년회 하태균 회장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18일(목) 국회에서 개막식과 오찬식을 마치고, 전국 한인회 회장단은 대구로 출발하는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고,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2단지 한인회 회원들은 관광버스에 탑승해 귀가하여 이튿날 19일(금) 행사일정에 따라 대구로 떠났습니다.

## 그랜드호텔에서 행사

18일(목) 국회에서 시작된 행사 개막식 후, 환영만찬은 19일(금)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오후 5시에 파주, 김포, 김해, 양산, 대창 양로원 등의 영주 귀국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 공연으로 대구아리랑보존회가 '대구아리랑'을, 영남아리랑보존회에서는 '사할린아리랑'을 어른신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은 이 행사가 먼 타국에서 이산을 겪어가면서 고생을 하신 사할린동포들의 한과 눈물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행사에서 하 회장은 영주귀국하여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동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날 하 회장은 사할린동포들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러시아어로 '사할린-우라! 대구-우라!' 외친 구호에 어른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환영만찬에 이어 자유롭게 어른신들의 노래자랑과 춤판이 벌어졌고, 허리, 다리 관절염도 잠시 잊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대구에서 매해 진행되는 행사는 역사를 기억하고, 사할린동포들의 삶과 복지 등을 살펴주면서 잠시나마 노인들이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모두가 그랜드호텔에 투숙하여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제10회 <사할린의 밤> 행사의 3일째인 20일(토) 아침식사 후 폐막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하태균 회장과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사랑의 하트를 보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배려해주신 주최 측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대구-김포에서 안춘대 (사진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제공)

# 사할린의 씨름 선수들, 중국 연길에서 성공적인 경기 치러



지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연길에서 민족씨름초청경기가 개최된 가운데 이에 중국, 한국, 러시아 선수들이 참가했다. 러시아 대표팀은 사할린(7명)과 하바롭스크(5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러시아 대표팀은 성공적인 경기를 치르며 17일에 펼쳐진 결승 경기에서 총 6개 메달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을 획득했다고 전해졌다. 이중 사할린 선수들이 금메달 2개(준 아르쭘, 춘 알리사)와 은메달 하나(파닌 로만)를 따냈다. 또한 9월 초에 사할린선수들은



독립국가연합의 대규모 씨름경기에 출전해 여러 개의 메달을 따낸 바 있다.

이는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가 씨름 종목에서 권위를 세워주고 있음을 증명한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주 씨름협회 제공)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김관덕

관리번호	95269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관덕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

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伊曼)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自由市)를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키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헌병이자 중대원이었던 김관덕도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 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имчхи собрал более 300 гостей

Более 300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яркого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 Сахал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имчхи, который прошел 20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е уже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организует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фестиваль с успехом проходит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Гостей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Ярким началом стало зажиг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арабанов «Ханыль». Но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конечно, стал массовый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легендарной корейской закус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наставников Хан Ден Дя и Лим Данила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г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секретам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Мастера раскрыли все тонкост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яннэма — особой заправки из красного перца, чеснока, соуса из анчоусов и рисовой муки, которая придает кимчхи ее уникальный вкус. Дружной командой участники приготовили два вида кимчхи: классическую из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ы и не менее вкусную из белокочанной.

Масштабы праздника впечатлили даж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ля гигантской порции витаминной закуски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1200 килограммов пекинской и белокочанной капусты, 30 килограммов красного перца и 45 килограммов чеснока! Фестиваль давно перерос рамки кулинарного события, став важным явлени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области. Это подчеркнули в своих выступлениях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же почтили своим присутствием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 Кук Чан Хён с супруго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Чжон Сын Хун и 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Фестиваль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казал, что искренняя любовь к вкусной еде и добрым традициям способна объединить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культур, создавая атмосферу настоящей дружбы.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 Выставка-конкурс «Сахалин о Чехове» в «СовременникЪ»: гран-при завоевал Дё Сон Ен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овременникЪ»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конкурс «Сахалин о Чехове». Это завершающий этап IV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освященного А. П. Чехову. В этом году проект приурочен сразу к трём важным датам: 16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исателя, 135-летию его поездки на остров и 130-летию выхода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тдельным изданием.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экспозиции — более 70 произведений живописи, графики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33 художника из 12 городов России — от Москвы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 приятно видеть, сколько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ся развитию творческой среды в регионе, поддержке худож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в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везло! И как результат — такое внуш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 таких разноплановых и интересных, что очень сложно было определить победителей, нам пришлось постараться, — призна-

ласть один из членов жюри Светлана Грачёва, декан факультета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искусств академии живописи Ильи Репина, искусствовед.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все они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и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Ну а гран-при IV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 о Чехов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пусти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каталог собственных работ завоевал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ё Сон Ен. На выстав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и его новые работ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ботами выставки-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 о Чехов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Экспозици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овременникЪ»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9 но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восьм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 Сан Мин (상민), получи послание!

Прошло уже 30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мы освободились от японского ига. Недавно я услышал по радио, что вы с женой заботитесь о матери и живёте хорошо. Это такая радость! Надеюсь, что у вас всё хорошо.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 поживают Сан Нён (상년), Сан Сул (상술) и Сан Сик (상식) со своими жёнами? Надеюсь, что их дети растут послушными, а все семьи и сваты счастливы.

Моё самое заветное желание — увидеть вас перед своей смертью.

Прошу тебя, Сан Квон (상권), пожалуйста, отправь письмо в редакцию радиопередачи, чтобы они передали новости о вас. Здесь плохо с почтовой связью. Просто имей это в виду.

У меня есть просьба, Сан Квон (상권). Пожалуйста, помоги мне. Я подал несколько ходатайств в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 с просьбой отправить меня в Японию. Недавно приходил милиционер из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Он проверил моё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и сказал, что если у меня есть родственник в Японии, то мне нужно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в Японию. Если такое разрешение будет, то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азрешит мне выехать из стра-

ны. Это значит, что не только я, но и все желающ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могут уехать, если у них ес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в Японию (2).

Пожалуйста, приложи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й ситу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и и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Если здесь всем, кто хочет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достаточно име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в Японию, то почему бы не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Если ты отправиш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ъезд в Японию письмом, пожалуйста, сообщи об этом по радио.

17 апреля 1975 года  
Ом Сун Гап (엄순갑)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 Комментарии:

(1)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в 1938–1989 г. высший орга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ы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2) В 1960–1970-х гг. советские власти допускали выезд из СССР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Были случаи сбора информации о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на родину.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Бок Зи Коу, всего в 1971–1989 гг.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заявлениям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могло выехать 6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лия Дин, к.и.н.

## «Восточный ветер»: сахалинцы прикоснулись к культурам Китая и Кореи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в рам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рума стал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Восточный ветер: Один пояс — один путь».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18 сентября на базе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де состоялись увлекатель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встречи, посвящённые культуре Китая и Кореи. Они превратили площадку форума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жив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Особую роль в знакомстве гостей с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ыгр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Её силам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 Гости смогли примерить изящный корейский ханбок —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с многовековой историей — и сделать памятные фотографии.
- Специалисты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сновы алфавита хангыль, считающего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логичных и научно обоснованных в мире.

Параллельно школа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LingvoChi» знакомила сахалинцев с искусством каллиграфии и ушу.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двух организаций был создан уникальный мост дружбы, позволивший сотням школьников и педагогов по-новому взглянуть на культуры стран-соседей.

Мероприятие вновь доказало важность работы диаспор в укрепл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на Сахалин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История корё-сарам станет частью «Памяти мира» ЮНЕСКО

В Сеуле дан старт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оек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признанию депортированной памя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2025년 9월 15일, 대한민국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대한고려인협회, 그리고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1937년 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집단기억을 복원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학술·문화적 협력 사업이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행동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입니다”

라고 밝히며,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의 침묵과 억압을 넘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존엄과 회복력을 되살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в з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ознаменовавшая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ус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включению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ё-сарам —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ран СНГ — в реестр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центром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ICDH),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КРК) и Мемориальным обществом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и объединяет эксперто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нститут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з Кореи и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РК укрепит статус страны на уровне ООН

Ли Чжэ Мён укрепит статус РК как ответственной глобальной державы, став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вать на открытых дебатах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 23 сентябр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Мин Сок,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80-летие основания ООН и 80-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и в этой связи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ООН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РК прошла путь от страны-получателя помощи в страну-донора и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в зрело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 станет поводом заявить мировому сообществу об опыте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Ким Мин Сок.

## Подготовка к саммиту АТЭС завершае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вершает подготовку к саммиту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К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31 октября -1 ноября. По сообщ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2 сентября общая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саммитом, превышает 95%. По его словам, «лидеры всех стран-участниц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в 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Помун в Кёнчж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лидеры США и Китая проведут двухстороннюю встречу на полях саммита, при этом она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как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в Кёнчжу, так и в другом регионе Кореи, включая Сеул. Решение о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и сторонами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ля лидеров, которые прибудут на саммит АТЭС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молёте, выделе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Кимхэ. Те, кто воспользуется коммерческим рейсом и прилети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смогут добраться до Кёнчжу внутренними авиарейсами, скоростным поездом КТХ или автомобилем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кортежа.

## В РК началась кампания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и саммита АТЭС запустило масштабную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ую кампанию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од названием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РК»,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с 22 сентября по 1 ок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ело церемонию начала кампании в порту Кунпхён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8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сотрудников ряда министерств, а также волонтер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ажд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17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страны.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участники приступили к очистке побережья от мусора. Кроме того, 22 сентябр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шли более 140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акций, которые охватили до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сильных ливней, прошедших летом, образовалось около 10 тысяч тонн морского мусора. Кроме того, ежегодно на лесных массивах и заброш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скапливается до 110 тысяч тонн отходов.

## Глава Церкви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 Хак Ча арестована

23 сентябр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выдал ордер на арест Хан Хак Ча - президента Церкв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ой фигурой в деле о связях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с её религиоз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Хан Хак Ча была арестована сразу после выдачи ордера. Арест был неизбежен, поскольку она трижды игнорировала вызовы на допрос и вела себя не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ледствию. Кроме того, существовала опасность уничтожения улики. Хан Хак Ча обвиняется в сговоре с Юн Сок Ёлем и передаче денег в январе 2022 года депутат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тогдашне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вон Сон Дону в качеств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жертвования в обмен на поддержку Церкви Объедин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она подозревается в том, что с целью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воей религиозной общины в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по июль 2022 года передала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Гон Хи дорогое ожерелье и сумку. Сторона Хан Хак Ча в целом отвергла обвинения, но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ледствием.

## Golden удерживает лидерство в Billboard Hot 100

Песня Golden — оригинальный саундтрек к анимационному фильму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ки на демонов) — шест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находится на вершине основного синглового чарта США Billboard Hot 100. Golden дебютировала в чарте в начале июля на 81-м месте, затем поднялась на 23-е, шестое, четвёртое, дважды побывал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а на седьмой неделе впервые вышла на первую позицию. Затем она неделю занима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после чего вернулась на первое. Рейтинг Hot 100 составляется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о потоковом прослушивании, радиотрансляциях и продажах. Помимо Golden, ещё три песни из саундтрека к фильму KPop Demon Hunters вошли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Billboard Hot 100. Your Idol находится на шестом, Soda Pop на пятом, а How It's Done на десятом месте. **RKI**

##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усок"

В субботу, 20 сентября, в Москве в Екатерининском пар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усок",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одному из глав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 Дню благодарения (по-корейски - ч(х)усок).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о Москов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ев.

Как отмечает корейскоязыч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о России buyrussia21, хотя в этом году Чусок выпадает на первые числа октября, но из-за стоящей в Москве хорошей погоды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нему фестиваль несколько пораньше,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Фестиваль посетил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Кореи,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Вниманию зрителей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выступления фольклорных, вокаль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Звучали песни как на русском, так 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ости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как глубок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так и зажигательными сценами и песнями в стиле современного k-pop.

Кроме того, прош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по тхэквондо, желающие сыграли в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й живописи и книг, посвященных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фестиваль стал "ареной сближения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Юж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ми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Ли Чжэ Мё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ООН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ООН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ем в Нью-Йорке 23 сентября. Это их вторая встреча после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прошедшего в июне.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что мир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вязаны с миром и безопасностью вс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призвал ООН поддержать переход от конфликта и конфронтации к диалогу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Глава РК также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реформам ООН, продвигаемым Антониу Гутерришем, и добав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евращению ООН в эффективную и дей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ОО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усилия Сеула как надёжного партнёра в решении таких ключевых вопросов, как гум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достижение целей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ЦУР),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 секторе Газа и в Украине.

KBS World

##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о создании "секретного оружия"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о создании Пхеньяном "секретного оружия", упомянув также и большие успехи по части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При этом подробностей вождь не сообщи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в ходе открытия заседан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которое начало свою работу в Пхеньяне в воскресенье, 21 сентября.

Проблематике успехов в укреплени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обороне Ким Чен Ын уделил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 своей речи. "Наш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артия добиваются непрерывного скачкообраз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деле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 заявил Ким Чен Ын, напомним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ых эсминцев, что стало "первым важным шагом в становлении морской державы", а также о "безостановочном укрепл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и улучшении характеристик серий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Далее последовало несколько загадочное высказывание. "Помимо этого, мы получили новое секретное оружи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немалые успехи в сфере оборонной науки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е внесу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езкое увеличение бое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 сказал Ким, не став вдаваться в подробности.

Лидер Страны чучхе признал, что ситуация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мире сложная, но КНДР уверенно смотрит в будущее. "Ситуация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ухудшилась до нижней точки, но степ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на небывало вы-

соком уровне", - сказал Ким Чен Ын.

Ким заверил депутатов ВНС, что ядерные силы КНДР могут ответить "на любые внешние вызовы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а их возможности по сдерживанию достаточны и полностью функционируют". "У наших врагов нет средств,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нашу абсолютную мощь, и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т", - считает Ким Чен Ын. "Мы готовы ко всему", - добавил он.

"Наши средства сдерживания войны сейчас задействованы, я надеюсь, что их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а. Если она будет провалена, то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приступят к задаче № 2", - сказал Ким Чен Ын. "Если будет активирована задача № 2,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во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их союзников в прилегающем регионе будет разрушена в одно мгновение. Я совершенно не желаю такого опас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 подчеркнул лидер КНДР.

Также в своей речи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к диалогу с США, если те прекратят поднимать тем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им также признался в хороших воспоминаниях от своих встреч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Сеулу же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с ним диалога не будет ни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ях, так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не вед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и нацелена на поглощение Севера. Про объединение Ким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советовал забыть Южной Корею, пообещав, что наличи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будет зафиксировано в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Южная Корея и BlackRock создадут крупнейший в Азии центр для ИИ

Южная Корея и крупная американс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компания BlackRock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 созданию "гипермасштабного" центра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способного обслуживать приложения и данны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оект рассчитан на десять лет и нацелен не только на внутренний спрос, но и на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ущие потребност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пресс-служб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в Нью-Йорке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Ли Чжэ Мена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BlackRock Ларри Финком,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опредседателем Всемир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глава Global Investment Partners (подразделения BlackRock) Адебайо Огунлеси и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Джим Ён Ким.

"Южная Корея - технологически продвинутая страна, ее граждане открыты к новым изменениям. Уверен, что она может стать образцом в быстром внедрен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переходе к возобновляемой энергетике", -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Ли.

Как пояснили в окружении Ли Чжэ Мена, дата-цен-

тр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возобновляемой энергии и обеспеча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самых ресурсоемких приложений. "Южная Корея получи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главить создание хаба для ИИ в АТР.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ивлечет капитал, но и даст старт передовым проектам, требующим соврем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отметил он.

Ларри Финк,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амерен помочь Южной Корею стать "столиц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Аз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оект открывает "широки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глобального капитала. Напомним, BlackRock управляет активами на сумму \$12,5 трлн, что делает ее крупнейше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фирмой мира.

Согласно плана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и BlackRock для дета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и проекта. При этом пока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возможное место размещения дата-центра и его планируемая мощность.

Объявление о старте инициативы совпало с готовящимся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Южной Кореи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Ли Чжэ Мен намерен провести открытые дебаты о глобальной регуляц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Иностранные участники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спели с группой «Любэ»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третила делегацию Первого Слёта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22 сентября приле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10 стран — молодые активисты, волонтеры, рабочая молодёжь.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они будут 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Сахалина, посетят знаков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 крупнейшие отрасле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 принимает этап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лёта с 22 по 26 сентября. На острова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ли 21 человек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Бразилии, Кении, КНР, Болгарии, Чехии, Бангладеш, Сенегала, Эфиопии и Грец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гост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чтобы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ностранцев с русской и, в частности, островной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Первый Слё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завершилс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и вот мы встречаем делегацию молодых лидеров из те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отправили своих ребят в нашу прекрасную страну. Более 2000 участников в 2024 году уже посетили Россию,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вновь прибыли сюда, а лучшим 200 участникам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отправиться в 10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соко ценит такую честь и доверие, поэтому мы сделаем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ездка в наш регион осталась в памят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 подчеркнул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Ченских.

В день прилёта иностранная делегация сразу же оцени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ени А.П. Чехова, где их встречал ансамбль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Далее гости посетили обзор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свящённую истори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 им показали Кафедральный собор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А вечером иностранная молодёжь посетила концерт группы «Любэ». Фронтмен Николай Расторгуев исполнил вместе с делегацией легендарную песню «Конь», а такж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ся на память со все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лёта.

Очень рад быть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Я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 сюда, и уже вижу, какие у вас прекрасные и гостеприимные люди. Очень хотел бы вернуться сюда. Думаю,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и слёт —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олодёжи увидеть Россию и получить интересный опыт.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город, где мы сейчас находимся. И уже оценил местную еду: она очень вкусная и разнообразная. Когда я вернусь на родину, я обязательно расскажу друзьям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и, надеюсь, они тоже загорятся мечтой увидеть Россию,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иностранной делег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негала Дауда.

Первый Слёт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организует Росмолодёжь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целях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постфестив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2024 году на федер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ириус».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10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еспублика Хакасия, Республика Мордовия,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Чече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вановская, Омская, Ярославская, Челябинская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и — организуют приёмы для 200 иностра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открыв для них уникаль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т панельную дискуссию с первыми лицами области — её темой станет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ов в контексте перспекти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акже гостей ждёт встреча с зампред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ячеславом Аленковым, ректором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ом Самардаком и проректором по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е 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СахГУ Ниной Жидяевой. Для делегации организуют презентацию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с посещением объек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сширен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визиты на ключе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большую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Всемирный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ёжи прошёл с 1 по 7 марта 2024 года и объединил 20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из 190 стран мира.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началом возрож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ФМ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Росси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один раз в 6 лет. В этот же период 10 тысяч молодых актив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будут собираться на Форуме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ёжи, а в интервале между мероприятиям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ематические слёты для 2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оссии и из-за рубежа.

##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здадут 11 новых лабораторий

Еще 11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появ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студент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ставников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над реальными задачами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Инициатива о создании лабораторий была единогласно одобрена ученым советом вуза.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точкой запуска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России — от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о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вуз становится научной опорой для новых решений, а его коллектив — командой изменений. Важно помнить, что университет — это не стены, а люди: уче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туденты, чьи знания и энергия превращают идеи в реальные проекты. Сегодня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работ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освоения шельфа и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схемы логистик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еспил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интересны индустриальным партнерам и дадут импульс дл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ередовые инженерные школы» в остров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пять лабораторий — электрохимическая, по водород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на транспорте, разработ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истем подводной добычи, моделированию процессов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по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му моделированию многофазных течений. Еще 6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по марикультуре, молекулярной биотехнологии, лаборатории морского приборостроения, морских электронных систем, исследований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педагогике — создаду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оспрограммы «Приоритет 2030». Запустить их в работу планируют в 2026 году.

Новые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нацелены на решение задач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шельфов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Так, в одной из них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с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цифровыми моделями систем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 газодобычи. Это важно для отрасли, поскольку раньше в этих целях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только зарубежные модели. В другой лаборатории на базе вуза начнется пилотирование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новое не только для региона, но и в целом для страны. Студенты вместе с наставниками станут первопроходцами, будут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 рассказал ректор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уже действуют 10 лабораторий, они создан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учных и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 СБЕРА, Газпромбанка, Чебоксарского электроаппаратного завода и др.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открытию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в 2026 году в вуз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21 научная лаборатория, где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на практике применять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в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СахалинТех» создадут 50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ссоциация ветеранов СВО - важнейший инструмент поддержки воинов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с правле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оль организации в деле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демобилизованным бойцам должна возрасти. Он считает, чт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уделить медицин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была созд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4 году.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а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ском, Анив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Тымов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Долинском и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ах.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Ассоциация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сновная ц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 помочь бойца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мирной жизн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и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по увековечиванию памяти героев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молодёжи, занялись организацией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о недавно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писок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был расширен. В него добавились помощь ветеранам в получе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юрид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беспечение достойн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содействие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решении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деле доказали преданность Родине. Поэтому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что в наших силах, чтобы помочь им вернуться к мирной жизни, решить их проблемы. Надо показать на примере этих людей, что вер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обязательно вознаграждается. Это важнейший элемент воспитания патриотизма у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Ассоциация ветеранов СВО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ейшим инструментом этой многопрофильной работы. Вместе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вы должны поставить дело так, чтобы ни один боец не остал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ссоциацию ветеранов СВО возглавляет Сергей Жигалкин,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меет боевые награды, прошел обучение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Время героев».

Задачи понятны, работаем в полную силу. За каж-

дым из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закрепили направление, по которому он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вернувшимися бойцам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уже отладил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област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Вс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ют у наших воинов, решаются очень оперативно, — сообщил Сергей Жигалки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щался с каждым членом правления и убедился, что все они готовы работать по выбран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скоре в руководств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яви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торый будет курировать вопросы леч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ветеранов. Тема эта сложная, а потому, по мн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ниматься ею должен человек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Обучение пройдет на баз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программе подготовки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тему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ёжи. Сегодня в школах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38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 реальным боевым опытом.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все учреждения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ребуется еще 82 педагога.

Я участвовал в чеченской кампании 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мею большой боевой опыт. Работу с детьми начал в школе №19 в Луговом. Вел уроки мужества, рассказывал ребятам о том, что такое патриотизм. Детям надо прививать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ее символике и истории,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Вы — настоящие воины. Уверен, среди вас немал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стать педагогами. У нас уже есть проекты «Авангард», «Юнармия», открыт центр «Воин».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и основы военного дела должны осваиваться еще в школе. Включайтесь в эту работу, мы поможе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ления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что Ассоциация будет привлекать к спорту не только ветеранов СВО, но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правила в зон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более 600 тонн адресных посылок и снаряжения. В регионе введ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их семей. Возможна покупка жилья по льготной ипотеч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 сниженной до 2 процентов ставкой.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щена кад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ней подали почти 450 человек. На обучение зачислены 55 ветеранов. Еще 30 действующ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пали в резерв. Те, кто не прошел отбор, все равно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для них разработаю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с учетом опыта и знаний.

## Уникальная фреска на дерев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арт-программы «Взгляды»

На улице Фабричной, 13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над необычным муралом.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сезона публичной арт-программы «Взгляды» художник Антуан Гиньяр создает уникальную уличную фреску на дереве, применяя авторскую технику.

Участник программы «Взгляды» Антуан Гиньяр — единственный художник в мире, кто создает картины в уникальной технике. Уличные фрески на дереве появляются при помощи болгарки и друг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За счет того, что нижние слои дерева светлее, чем верхние, художник вырезает изображения, прорабатывая светлые участки, в то время как темные остаются нетронутыми. Антуан Гиньяр узнал об арт-программе «Взгляды», отправил свое портфолио и получил приглашение стать ее участником.

Я работаю с деревом, потому что в Швейцарии у нас есть много деревянных шале и дом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замысла мурала, рисую ребенка, который смотрит на карту и изучает мир. Для меня дети — это будущее. У меня есть эскиз, но финальный рисунок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Творчество —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й процесс,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работаешь с таким сложным материалом, как дерево.

Деревянная фреска Антуана Гиньяр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30 уникальных работ второго сезона масштабной публичной арт-программы «Взгляды» на тему «Система координа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оздаются муралы на фасадах зданий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в Дальнем, Луговом,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Синегорске, Санаторном. Картину из дерева на ул. Фабричной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Оставшиеся 7 муралов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Напомним, публичная арт-программа «Взгляды» —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роект,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развивающий уличное искусств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й сезон, прошедший в 2024 году, объединил 38 художник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здавших более 50 объектов улич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площади свыше 1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целей нынешнего сезона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объедин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для улучш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гиона. Этот проект полностью соответствует задаче п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облик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ставленной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ан мэром Сергеем Надсадны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 세계한인회장대회 29일 개막 4일간 서울서 70개국 370명 참가해 모국과 연대 및 상생 논의

광복 80년 의미 새기는 행사...

10월2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개최  
김경협 청장 "동포사회 역량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 열어가는 계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하는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9월 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 미래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나흘동안 열리며,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거행된다.

대회에는 70여 개국 현직 한인회장 및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70여 명이 참가하고,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 인사 80여 명 등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으로 '공통 의제 토론'과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를 기획했다.

'공통 의제 토론'은 참가자들의 지역과 대륙을 넘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된다.

서로 다른 지역과 대륙에서 참가한 한인회장들이 한 조가 되어 전 세계 한인사회의 공통 현안, 한인회장대회 운영방안, 한인회 분쟁 방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규모의 인원(10인 이하)으로 토론 조가 구성된다. 조별 토론 결과는 대회 3일차 전체 회의에서 공유된다.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에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여해 한인회와의 협업사례를 소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지자체는 동포사회와 활발히 교류·협력해 온 지자체 가운데 이번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다. 본 프로그램은 동포사회와 지자체간 유대와 상호 발전 관계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의 가능성을 돋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의 대화, 지역별 현안토론,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법무부,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는 광복 80년 계기 사업, 거주국 정부와 협업해 동포사회 역량결집을 유도한 사업 등 동포사회 과급효과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청 바로 알기'시간도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의 서비스·제도·법령 및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륙별·국가별·사업별 통계도 공유한다. 이를 통해 동포단체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개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관기관 홍보관도 확대 운영한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총 11개 기관이 부스를 열어 재외동포를 위한 서비스를 홍보하며 재외동포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 홍보관 참여 기관(11개)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국립민속박물관,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원행정처, 병무청, 세계한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 재외한인구조단, 한국조형미술협회

김경협 청장은 "광복 80년을 맞이한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의 의미가 더욱 깊다"면서 "이번 대회는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모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История корё-сарам станет частью «Памяти мира» ЮНЕСК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История корё-сарам — это не просто история меньшинства. Это архив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это зеркало XX века, в котором отраж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боль, но и сила преодоления», — заявила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президент АКРК Тен Жанна (정영순).

## Память, пережившая изгнание

В центре инициативы —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депортации более 17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 1937 году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Эти события оставили глубокие раны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памяти народа, но также стали началом уникальной истории выживания, труда и сохране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Несмотря на лишения, корё-сарам сумели стать передовыми аграриями, учёными, деятелями культуры. Их история — это не только боль, но и торжество стойкости. Цель проекта — сохранить и сделать доступной эту историю миру, не как частную трагедию, а как универсальное наслед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Проект выходит далеко за рамки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интереса: это акт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защита памяти малы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нередко остаю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рратива.

Путь к глобальному признанию через гражданс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Этот проект, как было подчёркнуто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ретроспективой. Он открывает важный диалог о современном статус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том числе в сам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оживающие здесь более 100 тысяч корё-сарам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правовыми и социальными вызовами, маргинализацией и потерей языка. Признание их истори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способно измен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вернуть голос тем, кто десятилетиями был лишён его.

## Партнёрство во имя памяти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 подписан трёхсторонний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котором закреплено намерение всех сторон не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охранение и продвиж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столь тесного взаимодей-



ств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труктуры ЮНЕСКО с диаспорными и мемориа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Мы верим, что память о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 это не только национальное прошлое, но и основа для справедливого будущего. Хранить эту память — значит формировать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способное видеть за цифрами — судьбы», — отметил Пак Хонгы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От имени корё-сарам в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и церемонии подписания Меморандум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октор истор. наук Хан Валерий Сергеевич (глава экспертной группы), Пак Татьяна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КРК) и Ли Михаил (глава Сеуль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КРК).

## Память как мост

Включение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естр «Память мир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акт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изнания, но и нравственный ориентир для государств, обществ и институтов, стремящихся строить политику на основе уважения к человеку, его памяти и достоинству.

Этот проект утверждает простую, но фундаментальную истину:

забвение порождает повторение, а сохранённая память формирует культуру мира.

(Телеграм-канал АКРК)

#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как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обсудя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Регион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по развит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социальной и кадровой баз для поддержки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судя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25–26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ке «Сахалин Эксп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онпорта «Пушистый».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статусе выездной площадки десято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ператор –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обсудят стратегию баланса между сырьевым экспортом и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ой, а также вопрос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ереориентации экспортных потоков в условиях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и санкций.

– Сахалин –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центров Ро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и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отрасл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Мы сохранили план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добыч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выработки конкретны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укрепить 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поста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В этом году наше мероприятие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о статус выездной площадки ВЭФ, что указывает на его высокую значимость в деловом мире. Приглаша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наук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ом диалоге,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ем форума станет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Энергети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урсы,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щее». Среди тем обсуждения – роль энергетики для развития цивилизации,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как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толиц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экспортных потоков с учетом смещения цен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 Форум сфокусирован на обеспеч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Сахалина и России в целом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АТР через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нноваций,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устойч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в отрасли, что делает его важ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ых вызовов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Убежден, что Форум поможет выработать реш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ключевого сектора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 позволит наладить контакты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артнерами,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Фонда Росконгресс, директор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Игорь Павлов.

Всего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осемь тематических сесс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логистики для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включая модернизацию портов, создание мультимодальных хабов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рских операций. Также обсудят оптимальные модел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региона, внедрение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электрогенерацию, цифровизац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роме того, эксперты рассмотрят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артнерами из АТР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перспективы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и цифров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зда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ластеров,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меры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форум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эксперты и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отрасли. Среди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икеров –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Цивил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Госдумы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иколай Харионов;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ПАО «Газпром» Сергей Меньшиков; перв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АО «Газпромбанк» Олег Мельник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Роман Дашков и другие.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Молодеж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площадке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пройдет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цеха по ремонту газовых турбин и их компонентов и производству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тепл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ОО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Партне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АО «Инжиниринговый центр «Кронштадт», ООО «Флюид-Лай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завершение слета прошли памя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ебята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могилам военных летчиков и солдат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Ольховатка".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команда "Барс" получила шанс пред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борах "К поиску готов" в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삶을 위한 만 보 걷기> 전 러시아 행사, 사할린 주민들 동참

9월 28일, 세계 심장의 날과 국민의 건강한 심장 주간 및 전 러시아 걷기의 날을 맞아 < 삶을 위한 만 보 걷기 > 전국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걷는 사람'의 걸음 수를 세는 휴대전화의 측정 앱을 사용하여 배경 모드로 걷기(하루 동안 사람이 걷는 모든 걸음 측정)에 따른 단계 경기가 시작된다.

휴대전화 앱과 소셜네트워크의 기획 계정을 통해 국민건강연맹 전문가들이 대회 모든 참가자들을 지원하여 대회를 치르는 동안 단체마다 최적의 운동, 영양, 수분 섭취의 지침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건강한 생활방식의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알려준다. 자세한 정보와 참가신청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10000 шагов к жизни"

28 сентябр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10 000 шагов к жизни", приуроченная ко Всемирному Дню сердц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деле здорового сердца, а также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ходьбы.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стартом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фоновой ходьбе (все шаги человека за день)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по подсчёту шагов "Человек идущий".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 аккаунты проект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эксперты Лиги здоровья нации. От них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оветы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оптимального двигательного, пищевого и питьевого режима в период соревнований, а также общ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ведению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а также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на сайте.

## 100세 이상의 일본인, 10만 명에 달해

일본에서 100세를 넘긴 인구수가 역대 최고치인 약 10만 명에 달했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제팬 타임스(Japan Times)'가 전했다.

장수한 인구 중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8만 7,784명이나 된다.

올해 9월 1일 기준 일본에 100세 및 100세 이상의 인구는 9만9,763명으로 지난해 유사시기에 비해 4,644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55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에서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에 대한 인구통계가 집계되어왔는데 당시엔 153명에 불과했으나 1981년에는 1000명으로 기록을 썼고, 1998년에는 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5만 명에 달했고, 2022년에는 9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일본에서 가장 장수한 주민은 나라현에 사는 여성인 가가와 시게코 씨이며, 나이는 114세이다. 그녀는 80세가 되었을 때도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치료사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남성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은 나이가 111세인 시즈오카현의 미즈노 기요타카 씨이다. 현재 일본에서 인구 10만 명당 80.58명이 100세 이상이다.

장수인구수에 따른 기록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시마네현에서는 13년 연속 100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 10만 명당 168.6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고치현(시코쿠섬)에서는 157.16명이고, 돗토리현에서는 144.63명이었다. 10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낮은 곳은 사이타마현으로 인구 10만 명당 48.5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장수인구의 증가추세는 전례없는 인구위기를 배경으로 도드라져 보인다.

## Число японцев старше 100 лет приближается к 100 тысячам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ерешагнувших столетний рубеж, в Японии приблизилось к рекордной цифре — почти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Japan Times со ссылкой 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труда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Японии. Среди долгожителей преобладают женщины, их доля составляет 87 784.

Число ровесников века и старше в Стране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сент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о 99 763, что на 4644 человека боль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ем самым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55 лет фиксируется очередной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татистика людей старше 100 лет ведется в стране с 1963 года. Тогда их было всего 153 человека. Отметка в 1000 человек была побита в 1981 году. В 1998 году вышли на уровень 10 000, в 2012 году это число выросло до 50 000, а в 2022 году — до 90 000.

Самый старший житель Японии — женщина по имени Кагава Сигэко из префектуры Нара. Ее возраст — 114 лет. Даже когда ей было за восемьдесят, она продолжала работать (ее профессия — акушер-гинеколог и терапевт).

Среди мужчин самым старшим является Мидзуно Киётака из префектуры Сидзуока. Ему 111 л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Японии на каждые 100 000 человек приходится 80,58 столетников. В разбивке по регионам рекордсменом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долгожителей уже тринадцатый год подряд является префектура Симанэ, где на 100 000 жителей приходится 168,69 человек старше 100 лет. За ней следует префектура Коти (остров Сикоку) с показателем в 157,16 и префектура Тоттори (144,63).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 у префектуры Сайтама (48,50).

Расту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долгожителей в Японии наблюдается на фоне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